

# “한국불교 日화엄학 뿌리”

### 신라불교 연구로 일본인도학불교학회상 수상 후쿠시 지닌 교수

“현재 일본 학계에서는 한국 불교를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동북아 불교교류사의 중간 지역으로 파악하지 않고,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대승 불교를 꽃피워 일본에 전한 새로운 불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화엄학과 아스카·나라(奈良)시대의 불교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불교를 먼저 공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에서 열린 제 46회 인도학불교학회(본지 33호 15면 참조)에서 학술상을 수상한 후쿠시 지닌(福地慈念·38)씨는 한국불교에 대한 일본 학

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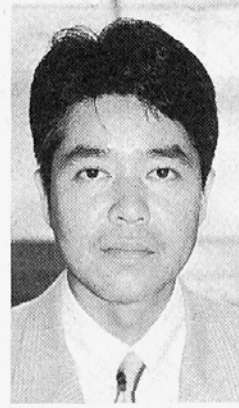
일본인으로서 최초로 한국 불교 연구의 업적을 평가받아

광(4)·원효연구(3)가 7편, 화랑세기 연구 6편, 한국불교 일반 5편을 차지하고 있어 신라불교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탐구열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대전 배재대학 일본학과와 정인강사로 활동하면서 김지경교수(정신문화연구

과 일본을 오가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스승으로 노무라 요소우(野村彌生) 立正大 명예교수, 나가무라 하지메(中村元) 동경대 명예교수, 김지경교수를 꼽는 그는 “한국에서 3년간 최선을 다해 연구



김재경 기자

## 원광·원효등 한국관련 논문 24편 달해

이 학술상을 수상한 그는 87년 立正大 대학 문학석사논문 ‘한국 구법승(求法僧)의 연구: 신라 원광법사’를 시작으로 94년 ‘부처의 덕성(德性)’에 이르기까지 27여편의 논문 중 24편을 한국불교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소장학자이다.

24편의 한국불교 연구논문 중 신라불교사 연구가 6편, 원

광의 지도로 초기 신라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후쿠시씨는 일본 立正大 대학 불교학부 강사와 학승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도 겸하고 있어 한국

활동을 한 후 목표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학술활동을 포기할 각오로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도학불교학회의 학술

### 통도사

**응진전**

有山有水乘龍虎  
(유산유수승용호)  
無是無非伴松竹  
(무시무비반송죽)  
會雲山蒙授記  
(중석영산몽수기)  
而今會坐一堂中  
(이금회좌일당중)

산이 있고 물이 있으니 용·호랑이를 타고 시비가 없으니 승즉을 벗하네

주위에 16나한을, 그 가장자리에선 범천(梵天)과 제석(帝釋)을 같이 봉안하고 있다.

제화갈라 보살은 과거불이고 석가여래는 현재불이며 미륵불은 미래불이라고 볼때 이 응진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과 16나한이 함께 모셔진 곳이란 의미를 갖는다.

주연의 내용중 첫구절과 두번째 구절은 이미 깨달은 수행인에게 있어 결할 것이 없는 경계를 표현하고 있다. 용이나 호랑이 소나무 대나무 등이 주는 초월적 이미지들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그리고 뒷구절들은 이미 부

### 일체 불보살의 중생제도 묘사

옛날 영산에서 수기를 받은 분들이 지금 한 집안에 모여 앉아 계시네

해설 응진(應眞)이란 진리에 응하여 남을 깨우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중생의 공양에 응할만한 수행자라는 응공(應供)과도 같은 의미이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나한(羅漢)을 일컫는 말로 쓰고 있다. 나한상을 모신 곳을 응진전이라 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나한은 16나한도 있고 5백나한도 있다. 그것은 나한이란 수행행이 뛰어난 성인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도사의 응진전은 속종 3년(1677)에 초창된 건축물인데 중수가 있었을 것이지만 기록은 없다. 단조로운 아홉칸의 맞배집 건물로 형성된 이 전각에는 석가여래상을 중앙에 좌우에 미륵보살과 제화갈라(提華伽羅) 보살상을 모시고



권영한

쳐가 되기로 ‘예악(수기)을 받은 분들이 이 전각에 모두 모여있다는 뜻으로 응진전의 거룩함을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주연의 내용은 관음에찬례문의 일부인데 영산이란 영취산(영축산)을 뜻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범화경을 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통도사 뒷편의 산 이름이 영축산인 것을 이 구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재미있다.

(안동 경안중 교사)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책 ①

## 北韓寺刹研究

사찰문화연구원 편저

북한 땅에도 ‘불교 문화’는 살아있습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민족 정신의 근간이며 찬란한 민족 문화 유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한 불교’의 온전한 복원. 민족 동질성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시도된 ‘북한사찰연구’

- I. 총설**  
북한의 승려·신도 단체, 북한의 종교 정책을 통해본 ‘북한 불교의 현재’
- II. 북한의 현존 사찰**  
북한의 현존 사찰로 알려진 60여 개 사찰의 역사적 고찰
- III. 북한의 주요 사찰**  
한국 불교사에 큰 자취를 남긴 12개 사찰의 역사적 인물, 귀중한 문화재의 모든 것
- IV. 북한의 불교 문화재**  
북한에서 지정된 58점의 불교 문화재의 종교적, 예술적 의미
- V. 북한의 사찰 재산**  
분단 이전 사찰 소유의 재산 현황(과거 31본산의 북한 지역 내 사찰 재산 목록: 289개 사찰, 82,000정보)
- VI. 북한의 사찰 목록**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1,793개 사찰과 문헌 정리(위치·창건·주요인물·문화재: 도표화)

• 680쪽  
• 4x6배판(사진 206매 수록)  
• 값 30,000원  
• 제작·발행: 사찰문화연구원 02-566-4709

공급 불교서적 전문 —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상은 한국에서 보광스님(동국대 선학과교수)과 김지경교수가 수상한 바 있다.



관음종이 지난 21일 ‘현대사회의 불교정신과 보살’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행연회.

### 보살의 이상은 ‘자비와 평등’

#### 미슈라박사 국제불교학술강연회서 주장

“불교는 개인과 집단,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였기에 전혀 괴롭힘 없이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퍼질 수 있었으며, 부처님에 의해 발견된 길을 따르도록 다른 사회, 문화·정신

적 배경의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었습니다.”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학의 석좌교수인 미슈라(K.N.Mishra) 박사는 지난 21일 대한불교 관음종(총무원장 홍광스님)이 주

최한 ‘현대사회의 불교정신과 보살’ 주제의 제6회 국제불교학술강연회에서 ‘현대사회의 보살적 이상’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슈라박사는 “과거 2천5백여 년동안 불교의 여정과 힌두교, 기타 다른 종교·문화와의 상호 작용에서 보살의 이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비와 평등을 확산시켜 왔다”며 “새로운 화평적 불교 형태와 종파 등을 발전시킨 한국불교는 불교전파의 매우 바람직한 본보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살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세대의 중생을 돕기 위해 자비로와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시공에서 여타의 모습으로 화현(化現)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이밖에 김선근교수(동국대)와 신규탁교수(연세대)가 ‘인간성 회복을 위한 현대인의 보살도’와 ‘불의 정신과 자기확신’을 각각 발표했다.

### “이승휴는 佛·儒 동일론 선구자”

#### 중앙대 진성규교수 밝혀

거사이자 유학자였던 (제왕운기(帝王運記)의 저자 이승휴의 불교관을 조명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중앙대 진성규교수는 지난 17일 한국사상학회(회장 김삼룡) 월례연구발표회에서 ‘이승휴의 불교관’이란 논문을 통해 고려 거사불교의 단면을 보였던 이승휴의 불교관을 ‘유·불 동일론’의 시각에서 조명했다.

진성규는 이승휴가 “천지인삼재(三才)와 유·불·도 삼교는 한 근원”이라고 말해 고려 사대부들의 유·불 동일론의 선구를 차지한 것이었으며, 이는 당시 통도사 뒷편의 산 이름이 영축산(英蓄山)을 뜻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범화경을 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통도사 뒷편의 산 이름이 영축산인 것을 이 구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재미있다.

당시 거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는 이자현(1061~1125), 이



이진성기자

오(1050~1110), 윤언이(1090~1149) 등이 있으며, 이밖에 대표적인 사대주의 유학자였던 김부식도 말년에 관란사(觀瀾寺)라는 개인 원찰을 짓고 불교 수행에 정진하며 스스로 동인(動安)거사라 칭했을 정도로 거사불교가 일반적이었다는 실명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윤명철씨(성균관대 강사)는 ‘고구려인의 시대정신에 대한 탐구 시론’을 통해 고구려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고구려인의 정신적 특성을 분석했다.

### ‘한국불교’ 국제학술대회

#### 9월 美 UCLA대서

미 UCLA대 한국학연구소는 오는 9월 15일~19일 同대학에서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의 한국불교의 위상’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한국불교의 동아시아 불교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로버트 버스펠교수(미 버클리대)등 미·일·유럽의 한국불교학 연구자들과 한국측의 정병조교수(동국대), 심재룡교수(서울대), 김희성교수(서강대)가 참가한다.

### 동대불교대학원 논총 발간

동국대불교대학원장 목정배교수의 ‘과학과 불교윤리’, 채인환교수(선학과)의 ‘신라초기 불교사상과 문화’ 등을 게재한 <동국대 불교대학원 논총> 제2집이 발간됐다.

### 잊지 말아야 할 다섯가지 은혜란 과학이 무의 세계 밝힐수 있을지

**문** 아침 예쁜문 중에 오종대은명심불망(五種大恩銘心不忘)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다섯가지 큰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인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진재·서울대 자연대학)

**답** 아다시피 경전에 따라 대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부모의 은혜, 국왕의 은혜, 스승의 은혜, 삼보의 은혜, 시주의 은혜 등을 가리켜 불자라면 모름지기 잊어서는 안될 은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 다섯뿐이었습니까? 지·수·화·풍 사대의 은혜도 큰 은혜이었지요. 또 세상 어느 것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꽃고 쫓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으며 인간까지 진화해 왔는데 그 과정을 거쳐 오면서 무엇이 아닌 된 적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때는 짐승의 몸으로 부모도 되었고 자식도 되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사람의 몸으로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좁게 한 가정에서 한 생애를 사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헛바퀴 돌듯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진화해온 도리를 안다

어려서는 짐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질을 쪼개보는 기술도 지구 높어져 이제 더 이상 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간은 유의 세계의 궁극에 이르러 무의 세계로 넘어가는 문을 발견할 수 있을는지요. (김도환·목포시 북교동)

**답** 따로 문이 있어 문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나눈다면 그 교차로를 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교차로에 죽을과 삶이 있듯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데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에 한마음 공부가 있듯이, 현대문명이 더 발달해서 그야말로 평화가 실현되자면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교차로를 알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별개 아닙니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이 심히 마른대 물 한컵 따라놓고 그것을 이리저리 분석한다 해도 같은 면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시는 게 장생이겠지요. 그와같이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궁극에는 어디에 이를 것인지를 따질게 아닙니다. 그런 것 따질 일이라면 왜 부처님게서, 역대 조사님들게서 마음공부를 기르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대승선원 대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정리해 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면, 아마도 남의 부모 내 부모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의 은혜가 크나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부모 아니고 남의 부모이니 은혜는 커녕 합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오종대은명심불망의 가르침은 쉽게 보면 무슨 윤리도덕 얘기 같지만 실은 돌 아닌 도리를 명심하려는 뜻입니다. 연기의 도리를 아신다면 꼼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치렀겠습니까? 이 점 잊지마세요.

**선본 상대가 맘에 들어 관했는데**

**문** 저는 혼기가 짙친 처녀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크신데 얼마전 선을 보고 상대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상어하는 눈치였는데 제 나름으로는 “그 사람과 꼭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마음에 다짐을 두어 관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 또한 집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장미선·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우주인의 지구 조상설에 대해

**문** 최근에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우주인과 독일 농부의 만남에 관해 쓴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지구인의 조상이 우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만 지구인은 진화한게 아니라 우주에서 왔다는 얘기를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순·평주 서구 생촌동)

관하는 것은 무엇을 해달라고 바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해달라’ 하면 벌써 비는 것이 됩니다. 관이란 쉽게 말해 나의 근본 마음자리가 코드를 갖아 놓고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을 꺾조차 ‘없’는 중심에 놓고 지켜보는 것이지요.

풀 한포기만 살아 있어도 말한게 아니고 물·불·흙·바람만 있어도 불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 따위는 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주인이라는 건 이릅니다. 이 우주에 주인 노릇하는 우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바로 우주의 주인이니 이 세상 사람처럼 고 우주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영동한 데서 찾지 마시고, 뒤 지구인의 조상이 어떻게 그런데 정진 빼앗기지 마시고 ‘최초에 나온 것은 어떤 놈이며 지금, 그리고 앞으로 갈 놈은 어떤 놈인지’ 그것부터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관함이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코 풀이 아남을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석같은 믿음이 없이는 몰락 놓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놓고 말한다면 ‘이게 정말 놓는건가 아닌가?’ 또는 ‘놓는다고 될까 안될까?’ 이런다면 그것은 코드를 제대로 안꽃았거나 꽃았더라도 헛다 꽃았다 하는 격이 됩니다. 이왕 관한다 할 것 같으면 코드를 꼭 꽃아놓고 풀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체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놓고 평등한 마음으로 풀이에게 지켜보면 보고 보이는 구별이 없이 모두가 한마음인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마음의 용광로에 다 풀어 넣으세요.

## “월간 <대중불교>를 만나십시오”

수행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도반은 필요 없습니다. <대중불교>가 함께 하겠습니까?

정법에 입각한 수행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불자가 나아가길 올바른 방향과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불교전문지 <대중불교>가 이제 수행운동을 함께 펼쳐갑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과 보람으로 이끌어 줄 대중불교!

지금 당장 전화로 신청하세요!

불교방송교재 ‘경전공부’ ‘교리강좌’ ‘불교역사 한마디’를 권말부록으로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월간<대중불교> 전화: (02)773-5731, 752-7047 / 팩스 (02)771-6796